

# 국민 앞에 무릎 꿇으라

## 도법 스님, 조계사 찾은 한나라당 불자 국회의원에 쓴소리



“조계종과 현 정부가 불편하게 된 데는 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여당대로 조계종은 조계종단 대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자정과 쇠신을 원한다면 조계사나 조계종단을 찾아올 일이 아니라 국민을 찾아가라. 조계사 법당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할 일이 아니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절하라.”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이 조계사를 찾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조계사 참배가 보여주지 못한 행사가 아닌 국민과 민족문화를 위한 본연의 역할에 매진하라며 일갈했다.

도법 스님은 이날 법회를 올리기 위해 조계사를 찾은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와 여당이 불교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교미래사화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듯 불교계가 이익집단화 되고 있다는 국민인식 변화와 함께 자칫 이번 참배로 불교계와 정부 여당이 양측의 이익을 위해 합의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보다 당당해질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런 악역을 또 맡게 됐다”고 말문을 댄 스님은 이날 법문 내내 조계종단과 정부와

여당 모두의 각각 부처님 정신, 헌법 정신에 따른 각성을 주문했다.

도법 스님은 “조계종은 대통령이나 정부나 여당이 아닌 국민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길을 갔다면 냉소·불신 받는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만들어 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 대통령, 정부, 여당도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을 잘 모시고 섬겼다면 정부여당과 조계종단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들이 만들어 지고 불편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특히 조계종단에 대해서는 진정한 자성과 쇠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스님은 “우리 문화를 발전·승화시키는 일이 불교를 위한 일이 아니다”며 “불교계와 조계종단은 우리 민족문화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버려야 하며 그로 인해 특정종교에 특별한 지원·혜택을 주는 것처럼 문제가 다뤄진다면 그야말로 대단한 어리석음”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자성과 쇠신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며 “정부여당과 불교계와 조계종단은 국민을 주인으로, 시민을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해 바람직한 협력과 긴장관계를 균형있게 유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님은 “국민들의 이익과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보무당당하게 나서시기 바란다. 그래야만 오늘 이 자리가 진정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 국회의원 막은 청년불자 대불청 정 우 식 회장



4월 19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조계사 참배를 앞두고 청년불자들이 조계사 사문을 막아 화제다.

조계사를 찾은 20여 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대한불교청년회 정우식 회장이었다.

지난 4월 초 조계종 총무원의 신형차원의 정부 및 여당인사 출입 허가에 대해 침묵시위를 벌이던 정우식 회장은 이날 “청년불자로서 오늘 법회를 응담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의 앞길을 막아섰다.

정우식 대불청 회장은 “12월 8일 이후 4개월간 정부여당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보여준 진정성 있는 활동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참회에는 박수를 치지만 불자의 원이라면 그것을 넘어서 더 책임성 있는 의무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한 참회와 반성의 태도 없이 일회성 행사로 조계사를 찾아 기도올리는 것은 불자들을 우롱하는 일이란 것이다.

이런 반발에 대해 이날 김학송 의원은 “부처님 앞에 오는 데 누가 막느냐?”며 반발에 맞받았고, 이에 정 회장은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이다. 청년불자로 이 법회를 응담할 수 없다”고 말해 양측은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갔다.

국회정각위원장 최병국 의원이 이에 김 의원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려, 더 이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법회 이후 조계사에서 기도를 올리던 노보살들도 국회의원들을 향해 “진심으로 참회하라”며 경계했다. 노덕현 기자

## 이냐은 기자의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 “처음부터 현수막 걸지나 말지”

한나라당 의원들이 4월 19일 오전 ‘상생과 화해’를 위해 조계사 법회를 봉행한 가운데,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이번 정부여당의 조계사 방문에 대한 조계종의 대응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여당 인사 사찰 출입 금지’ 현수막 걸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속된 말로 ‘배알도 없는 것’ 처럼 보인다. 이리니, 불교계를 알뜰 수 밖에 없지요.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조계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

응도 보인다. K씨는 “조계종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지금 조계종은 잘못된 가르침에 길들여져 있다. 선종과 통불교를 지향한다면 서정작 상좌불교를 숭승불교로 폄하하거나 일부는 시주금만 얻어 먹는 편협한 경향이 길들여져 있다. 그리고도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대표하는 종단이라고 말한다. 차라리 정통보다는 새 것이 훨씬 낫다”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정부 여당이 무릎 꿇을 일이 아니고, 조계종 집행부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냐은 기자

## 조선왕실의궤, 6월에 돌아온다

### 5월 14일 반환기한...일본 지진으로 늦춰져

일본 공내정이 소장한 조선왕실의궤가 이르면 6월 국내로 돌아오게 된다.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공동대표 김의정, 이하 환수위원회)는 “조선왕실의궤(일본 공내정 소장) 반환과 관련한 일본 국회(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4월 22일 비준심사가 있다. 이르면 6월 한국으로 반환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일본 국회의 비준심사와 관련해 환수위원회 운영위원장 법상 스님

(운흥사 주지), 사무처장 해문 스님, 이상근 실형위원장(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이 일본 국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이다.

일본 간 총리는 2010년 8월 10일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답화문을 통해 조선왕실의궤 반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11월 14일 한·일 정상회담이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 1205책의 반환협정을 통해 6개월 이내 반환을 약속했다.

조동섭 기자

## “정치권 변화 조짐 보인다”

### 자승 스님, 교구본사주지회의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정치권의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며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문화재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한 진실성과 책임성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정부·여당의 더 많은 변화를 촉구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 인사말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

자승 스님이 정치권의 변화로 지적한 것은 한나라당이 최근 구성한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와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의 발언이다.

자승 스님은 “정부의 이 같은 변화는 전국 교구본·말사가 단일된 모습과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조계종 핵심과제 대체로 ‘원활’

### 총무원 기획실 자체평가, 9개 과제는 ‘미진’

조계종 제33대 집행부가 추진 중인 26개 핵심·주요과제가 자체평가 결과, 14개 과제가 ‘원활’을, 3개 과제가 ‘보통’을, 9개 과제가 ‘미진’ 평가를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4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핵심·주요과제 1/4분기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평가는 총무원 기획실이 수행했다.

평가 결과, 9개 핵심과제 중 △승가복지 △불교규제법령 폐지·개정 △한국불교 세계화 △승가교육 △지역포교 활성화 △사회문제의 불교적 대안 창출 등 6개가 ‘원활’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 공동성 실현은 ‘보통’ △종단재정구조 다변화 △전통문화정책 수립은 ‘미진’ 판정을 받았다.



조계종 기획실장 정만 스님은 “기관별로는 총무원 부서별 추진과제들이 교육원, 국제센터 등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민족문화수호활동에 총무원의 역할이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 자승 스님 승적위조 무혐의

### “수개월, 종단 적법절차 따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승적 위조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승적부 위·변조 의혹과 업무방행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자승 스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4월 17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3월 31일 고발인 성호 스님(속명 정한영)의 항고를 수용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서 재수사해 왔다.

검찰은 자승 스님의 승적부 사본과 다른 후보자의 이력서 등을 추가 확보해 재조사한 결과, 수개월이 종단의 적법절차에 따라 정정됐다며 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 박구원 만평



www.bba.or.kr / www.bba48.or.kr  
어서오이소부처님·너도당실나도당실

# 2011 부산민등축제

Busan Lotus Lantern Festival 2011

2011년 5월 1일(일) ~ 7일(토)

2011 부산연등축제  
Busan Lotus Lantern Festival 2011

**연등축제 점등식**  
4월 15일(금) 오후 7시, 부산역 광장

**연등축제 문화한마당**  
5월 1일(일), 용두산공원  
· 오전 11:00 - 무차만발 공연 : 소전시까지 (비행범3,000그릇)  
· 오후 03:00 - 제4회 비보이 경연 대회  
· 오후 07:30 - 부산연등축제 축하 음악회

**연등축제 연등한마당**  
5월 1일(일) ~ 7일(토), 용두산공원  
용두산공원 일원 대형 전통등 전시회운영  
(5월 1일 오후 7시 - 부산연등축제 연등 한마당 점등식)

**연등축제 연합대법회 및 연등퍼레이드**  
5월 7일(토) 오후 3시, 구덕종합운동장  
퍼레이드 구간: 구덕운동장 - 대청로 - 부산우체국 - 롯데백화점 광복점 - 광복로 - 용두산공원

**연등축제 회향한마당**  
5월 7일(토) 오후 8시, 용두산공원  
“불꽃·레이저·멀티미디어 쇼”

전화: (051) 867-0501~3 · 팩스: (051) 867-0504  
주소: (우)614-856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1동 393-12 불교회관 400호